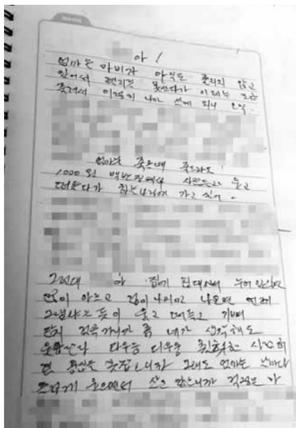


할머니가 남긴 사랑... '천원 밥집'은 계속됩니다

故 김선자 할머니 타계한 날에도 식당 열고 손님 맞아 대인시장상인회 고인의 숭고한 뜻 이어 계속 운영하기로

“1000원 백반집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
딸에게 보낸 편지 감동



'천원 밥집' 할머니 김선자씨가 막내딸에게 남긴 편지(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

■ 19일 오전 9시30분,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 주방은 분주했다. 주방장 김영애(여·57)씨는 점심 시간을 앞두고 오이지를 써느라 여념이 없었다. 주방장 김씨는 오이지·열무김치 등 반찬 2가지에 단장국을 곁들인 1000원짜리 밥상을 준비하면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식당 주인 김선자 할머니가 18일 투병 끝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김 할머니 따뜻한 마음은 식당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밥 짓는 냄새도 어느때처럼 구수했다.

'1000원 백반'을 팔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됐던 김씨의 식당은 그가 세상을 등진 18일, 19일에도 손님을 맞았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식당이 계속 남아있게 해달라", "형편이 어려워도 '땀맛하게' 내내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인의 뜻을 이어 시장 상인회는 '1000원' 밥집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웃 상인 이석필(59)씨는 "김 할머니로

부터 이웃과 나누는 상도(商道)를 배운 은혜를 갚고자 천원 밥집을 지키겠다"며 강한 애착을 보였다. 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이날 점심 때도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맛은편에서 흥어를 파는 백정자(여·54)씨도 "김 할머니 소식을 문자로 받았지만 그날도 식당 문을 열었다"면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할머니 부음을 전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14일 병원을 찾았을 때도 김 할머니가 본인 건강이 아닌, 식당 운영 상황을 챙겼다고 기억했다.

식당 곳곳에는 김 할머니의 넉넉함과 꼼꼼함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식당 한 칸에 놓인 장부에는 김 할머니의 식당 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매일 빼곡하게 적힌 반찬거리 구입 비용과 수입 내역, 어려운 형편에도 도움을 손길을 건네준 주변에 대한 고마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김 할머니 뜻에 동감, 도움을 줬던 '착한'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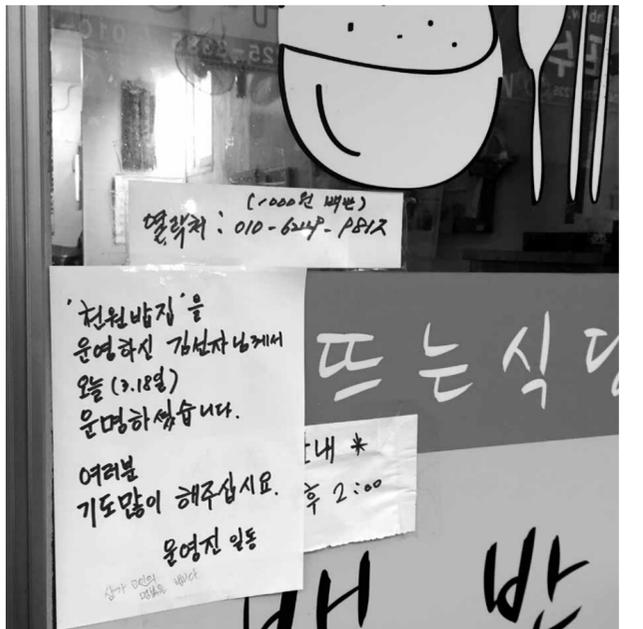
다. 2년째 매달 쌀 60kg을 보내는 경기도 일산시의 중년 남성을 비롯, '상일여고 동아리 2만5000원 기부', '서울에서 온 윤 모 학생 5000원 기부' 등 도움을 준 사람·날짜·내용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일주일애 2~3차례 반찬 거리 기부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1000원짜리 백반 100명분을 만들어 판매하기가 벅거워 자식들이 건네는 용돈을 보태 식당을 지켜낸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다.

죽음을 앞두고 막내딸에게 남긴 유서도 눈에 띄었다. 김 할머니는 "엄마 손 마비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서 편지를 못 쓰다가 이제 조금 풀려서 이렇게나마 쓰게 되니 오지 감사할 따름이다"며 "엄마는 죽을 때 죽더라도 1000원 백반집에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라고 썼다.

빈소에는 식당 자원봉사를 해왔던 20여 명이 자리를 뜨지 않았고, 그의 넉넉함을 기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천원 밥집' 해뜨는 식당의 출입문에 자원봉사자가 붙인 김선자 할머니 부음.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중흥건설 본사·계열사 압수수색

검찰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 주체인 중흥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역 경제계는 정부의 '부패와의 전면전' 선언과 맞물리면서 검찰의 고강도 부패 청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신대배후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사의 위법 사항을 포착, 지난 17일 중흥건설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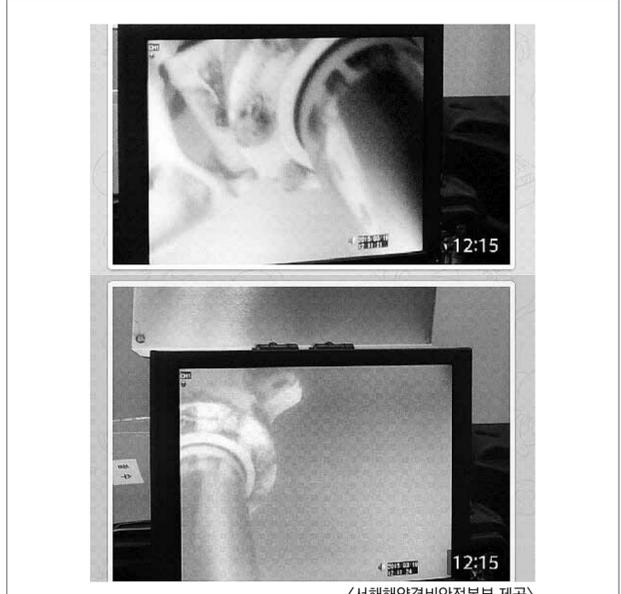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 고발에 따라 신대지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위법 사항을 수사하다 용지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

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용지 용도를 변경해 천억원 대의 특례를 준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해당 개발사업사 대표를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한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듯 보였던 검찰이 수작업 교체 직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자 향후 수사 향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의 불투명 중흥건설 뿐 아니라 동종 업계로 옮겨붙을 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사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가거도 해상 추락 헬기 동체 발견

가거도 인근 해상에 추락했던 해경 헬기의 동체가 사고 7일 만에 발견됐다. 19일 사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께 75만톤 흑산면 가거도 남쪽 1.2km(수심 75m) 지점에서 헬기 회전축으로 추정되는 몸체 부품이 발견됐다. <사진>

사해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선 음파탐지기를 통해 동체를 찾았으며, 19일 오후 해군 포화잠수사

10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동체 결박에 나섰다. 동체(2.8t) 인양에는 정해진함(4300t)에 설치된 해상 크레인 사용되며, 사해 해경은 인양이 완료되는 대로 사고원인 조사가 나설 예정이다.

헬기에 탑승한 해경 4명 중 정비사 박근수 경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 실종자는 3명이다. /백희준기자 bhj@

도박 베트남 이주여성 등 무더기 적발

광주경찰청, 20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은 19일 주택가에 도박장을 열고 도박을 한 베트남 국적 A(여·54)씨 부부와 베트남 이주여성 등 20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전주, 군산 등 전국에서 모여든 베트남 이주 여성들은 지난 5일 광산구 월곡동 주택 2층 A씨의 집에서 판돈 780만원 을 걸고 '퐁'이라는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한 혐의다. 달러를 포함해 7명이 6장씩 카드를 받은 뒤 3장의 합이 높은 쪽이 돈을

갖는데, 이들은 한 판당 1~10만원씩 걸고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장을 연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010년 2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딸의 초창기 수입으로, 2013년 2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부부를 강제 추방 조치했다.

경찰은 도박에 가담한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편에게서 '부인이 도박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검거에 나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피해자들은 처벌말라고 했지만

법이 용서하지 않은 '못된 아빠'

10대 아들에 엄마 때려라 강요... "죄질나쁘다" 징역 2년 선고

아들에게 엄마를 모욕하고 폭행하도록 강요했던 40대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일보 2014년 11월 18일자 6면 참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9일 부인이 '부적절한 장소'를 드나드는 것으로 의심, 아들에게 엄마를 혼내도록 강요하고 부인의 얼굴에 담배불로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세도 되지 않은 아들에게 어머니를 비난하고 때리게 강요하는 등 아동 정서발달에 큰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한 뒤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까지 찾아가 학

생들 앞에서 모욕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아들·부인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와 부인에게 입힌 상해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A씨는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호스트바'로 의심되는 장소를 드나드는 것으로 오해해 질책하던 중, 아들(14)을 불러 엄마 머리에 물을 붓게 하고 엄마를 때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제경매가액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2472	1	신안군 신원면 상서리 109-4 635㎡ [현황] 전	2,222,5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190-2 473㎡ [현황] 전, 일부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2,222,500		
	3	동소 190-4 460㎡ [최순순위설정일부도분리] 대	6,477,200	각종채외, 면적2.3배	상권성립여지있음
	4	동소 205 241㎡ [현황] 전	5,572,100	일괄매각, 농지취득	
	5	동소 254-45 1026㎡ [현황] 전일부도로, 분묘	5,1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8982	1	목포시달동 168-58 325㎡ [현황] 전일부도로, 전	6,402,500	인양지 [168-30] 건	
	2	동소 160 311㎡ [현황] 전일부도로, 수목채외	13,642,900	일괄매각, 농지취득	
2014타경 9152	1	영암군 삼호읍 남천리 924 1960㎡ [현황] 전	176,458,000	일괄매각, 농지취득	
	2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산56-15 3996㎡ [현황] 전	47,95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	
2014타경 10749	1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산96 2808㎡ [분양소] 전	77,371,600	일부합동부담부지외	
	2	동소 2036 740㎡ [현황] 전	8,305,500	경유로임야, 현	
	3	동소 2045 998㎡ [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 전	8,305,500	경유로임야, 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제경매가액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10749	2	동소 341-2 2114㎡ [현황] 전	13,081,200	일괄매각, 비닐화	
	3	동소 341-4 164㎡ [현황] 전	13,081,200	우수매각용,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10961	1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170 774㎡ [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 전	11,736,800	일괄매각, 현행임	
	2	동소 170-1 2678㎡ [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 전	11,736,800	아, 장기휴경으로	
2014타경 12745	1	신안군 임해읍 송림리 715-13 82㎡ [매각재] 대	4,340,000	법정지상권성립여	
	2	외인점지 [송림리716] 건물전일부합계소지	4,340,000	부부합	
2014타경 13908	1	무안군 현경면 광덕리 1117-13 1190㎡	21,4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1231-2 1545㎡	27,81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11131	1	시흥면거지:군산시 군산산단로160오석도	11,000,000	보관장소:전남무	
	2	동] 등록번호:87527089 차량:포터이(PORTER	11,000,000	인근도로지정장리	
2014타경 7477	1	신안군 임해읍 송림리 269-3 356㎡	31,298,000	일괄매각, 채외	
	2	동소 272-1 195㎡ [농지취득자격증명] 대	31,298,000	건물부합, 국책2.4	
2014타경 12509	1	동소 369-99 17㎡ [목책1과지분동일, 도로계] 도로	1,651,680	일괄매각, 지분대	
	2	동소 369-100 13㎡ [목책1과지분동일] 도로	1,651,680	수권행사제한, 목	

전과 78범 50대, 무전취식에 경찰 폭행 또 철창신세

○...교도소만 12년 다
년은 50대 남성이 무전취
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또다시 철창 신세.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성모
(58)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에 서구 상무
지구 K유형주점에서 양주와 주주 등 40여
만원어치를 먹고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
고 버티던 중 "정신 차려 보시오"라고 문

는 강모(47) 경위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
는 것.

○...지난 1974년 만 18세의 나이에 폭행
혐의로 처음 입건된 이후 40여년간 사기와
폭행, 무전취식 등을 일삼아 무려 78건의
전과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사기
(무전취식)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되면서 전과 80범이 될 처지.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